



# 군종주보

2022년 5월 29일(제1090호) 주님 승천 대축일(농보 주일, 청소년 주일)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성당 마당의 풀들을 망연하게 바라보며 여름이 가까웠음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며 또한 한국교회회는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청소년 주일’로 지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부대를 오가면서 수많은 젊은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지금은 성인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멋지게 해내고 있는 장병들이지만, 불과 한두 해 전까지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있었던 학생들이었다는 점이 떠오르곤 합니다. 과거 청소년 주일을 ‘세계 젊은이의 날’로 지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모든 청소년과 불철주야 나라를 지키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청합니다.

한국천주교회는 부활 제7주일을 ‘주님 승천 대축일’로 지내고 있으며 이날은 예수님께서 지상의 구원 사업을 모두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루카 22,42)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 즉 죽음과 부활의 지상 임무를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마치 군인이 국토방위와 자국민 보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땀 흘려 훈련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피와 땀을 흘리시며 당신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 “시명”

제1독서에서 선포되었으며 루카 복음사가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사도행전 1장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름에 휩싸여 모습이 사라진 곳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그분의 사도들에게 흰옷 입은 천사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훗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이후에 기도에 전념하고 한마음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자신들의 임무와 사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은 기나긴 시간을 거쳐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공생활 중 어떠한 복음(福音)을 선포하셨는지, 그분께서는 어떻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전해주셨는지를 이미 알게 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행해야 하는지 교회와 신앙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제자로서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문강(크리스토폴) 신부  
중장(제31보병사단) 상당 주임

- |         |                                                                                |
|---------|--------------------------------------------------------------------------------|
| 제 1 독 시 | 사도 1,1-11                                                                      |
| 회 탑 송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
| 제 2 독 시 | 에페 1,17-23                                                                     |
| 복음 본보송  | ◎ 알렐루야.<br>○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br>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
| 복 음     | 루카 24,46-53                                                                    |
| 영 성 제 송 |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

#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 스무 번째 시한

압수한 편지들과 지도들을 제게 가지고 왔습니다. 판관들이 한문으로 쓰여진 두 편지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안부의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양어로 된 편지들을 주며 번역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포교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그들에게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은 베르뇌와 매스트르와 리브와 신부님들에 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학자들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판관들은 주교님의 편지와 제 편지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누가 그 편지들을 썼느냐고 물었습니다. 보통으로 제가 쓴 편지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주교님의 편지들을 보이며 그와 같이 써보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들은 피를 부렸고 저는 같은 피로 그들을 이겼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 글자들은 철필로 쓰여진 것이요. 그 철필을 갖다 주시오. 그러면 만족시키 드리지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철필이 없소.” “철필이 없으면 이 글자들과 같은 글자를 만들 수 없소.” 새 깃을 가지고 왔습니다. 판관이 그것을 제게 주며 “이것을 갖고 쓸 수는 없소?” 하였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서양 글자에서는 같은 사람이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소.” 그리고는 깃을 아주 가늘게 깎아서 아주 작은 글자로 몇 줄을 썼습니다. 다음 뾰족한 끝을 자르고 큰 글자들을 만들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이 글자들은 다르지 않소.”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만족시켰고 그래서 그들은 편지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습다. 주교님께서서는 조선의 우리 학자들이 서양의 학자들과 같은 수준이 아님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와 같이 붙잡힌 교우들은 서울에서 아직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현석문) 가롤로는 자기와 함께 잡힌 사람들과 같이 다른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런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우리는 10명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록	상
---	---	---	---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비행



그로 인해  
하늘을.

이것으로  
충분한  
우리입니다.

# 6월 상시집 목상글

복음 낭독: 마르 15.6-15

(이어서 신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래의 글을 낭독한다.)

빌라도는 헤로데가 예수님을 유죄로 판결하지 않은 것을 보고, 자신도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대 풍속에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가 되면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죄수들을 보여 주며, 그 가운데에서 누구나 마음대로 골라 풀어 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관례를 이용할 마음으로 바라빠라는 죄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앞에 세워 놓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하였습니다. 바라빠는 반역자이고 강도이며 살인자로 모든 백성에게 미움을 받아 감옥 생활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포악무도한 바라빠를 죽이고 예수님은 석방하라고 할 것이라고 추측하고서는 “내가 누구를 풀어 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빠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마태 27,17)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빌라도가 생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오히려 바라빠를 살리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지혜로우시고 선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께서 도적이고 반역자이며 살인자인 포악무도한 인간과 비교를 당하셨습니다. 모든 천시를 받기에 합당한 죄인과 비교되신 지존하신 하느님의 성자, 이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겸손의 표양을 주시고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선하신 주 예수님, 주님께서서는 예언자의 입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이사 40,25) 하신 말씀을 지금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전보다 더 참기 어려운 모욕이 지금 주님께 쏟아지는 것을 봅니다. 저희는 참된 겸손으로 이를 갚고자 합니다.

출처 : 『상시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2, 138~139쪽 발췌

##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주님 승전 대축일: 한성대 박진호 신부

### ◆ 교구장 동정

- 화랑(제11사단) 성당 사목방문
- 때: 5월 29일(주일)

### ◆ 「기쁨의 신지 엮」 이틀 공모 안내

- 공모기간: 2022년 5월 15일(일) ~ 6월 5일(일)
- 참가방법: 굿뉴스 이벤트 게시판에 등록
- 선정인원: 1명
- 상금: 30만원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상제상시로 기쁨나는 삶” -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 6,57)